

건축과 도시계획 이론

REPORT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 Theory

by Kim, Young Ha

I. 서론

도시라든지 마을 또는 동네라고 하는것은 인간에게 향토적인 내용을 지향하게 하는데서 존재가치가 수반된다고 하겠다. 산을보호해서 경지조성을 한다든가, 강물을 통제해서 수리시설을 이용하고 기술을 개량 시킨다든지해서 취락을 개선하고 노동력을 활용하므로 인해 생활습관이 향상되고 문화생활을 형성시켜 나가므로 인해서 지역을 개발한다든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또는 시가지를 정비한다, 도시를 재개발시킨다,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 것 등은 간단히 말해서 치산치수라는것으로 표현할수 있다. 즉 치산치수란, 무질서한것을 적절하게 배치시키고 통제하므로 인해서 질서화 시킨다는 뜻으로 이해될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건축에서나 도시계획에서의 용어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 도시란 개개의 건축물과 도로와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간 구성체 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시는 하나의 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될수 있다. 그래서 개개의 건축물을 점이라고 볼때, 점의 연결은 선의 형성이 되며 선은 곧 면 적인 영역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기본적인 축이라고 할때 점과 선과 면 적인 계획을 들수있는데 이것을 건축에 적용시켜 보면 기능은 형태와 연결되고 합쳐지므로 해서 소위 용도(用)와 미(美)가 일체가 될려는 방향을 추구하는것이라 할수있다. 이처럼 건축이나 도시에 있어서의 형태는 주위의 상황이라든지, 지리적 조건 또는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형성되는것이며 또 그 기능에 따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형태를 이루는 장소가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색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 특색이 자연적인 특색일수도 있고 전통적인 특색일 수도 있으며 또는 인공적인 특색일 수도 있는것이다. 한편 시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어떤 영역을 갖고 있는 생활공간에 새로운 기계화의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고유한 개성이 소멸되고 퇴색되어 버리는 예가 비일비재하게 볼수도 있다. 이것은 기계화로 말미암아 생활범위가 광역화 되면 필수록 풍토적인 경치라든가, 문화적인 습관이 침식되고 심지어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간성마저도 획일적으로 되버리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마치 카메라의 초점이 흐려서 사물을 똑바로 인식할수 없는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수있다. 자기가 위치해있는 공간이나 주변환경, 주거환경이든 생산환경이든지 또는 마을이나 도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 할수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의 장소를 가리켜서 계획적인 시점에서 대상을 포착 할려고 할때 지장(地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표현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장이라고 하면 건축이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부지의 개념속에 취급할수 있으며 다음 3가지로 이야기 될수있다. 첫째, 수평지상에 면해서 펼쳐져 있는 토지의 넓이. 둘째, 인공 지반을 포함한 종합적인 토지의 면적. 셋째, 지하 구조물을 포함한 지하의 면적. 이상과 같이 이른바 부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대지(大地)의 면적을 어떠한 관점에서 계획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하나의 방법론을 하려는데 건축이나 도시 계획에 있어서 하나의 계획수법이 있다고 할수있다. 이것은 부지가 어떠한 장소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시야가 달라져 보이는 것과도 같다. 또는 거주지나 비 거주지나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후와 풍토조건에 따라서도 다르다. 마을이나 도시가 형성될수 있는곳에서의 입지조건과 정착지를 가꾸어 갈 경우에 있어서의 형태란, 물리적인 생활환경에 직접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거주형식이라든가, 공간구성 역시 그것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나 또는 간접적으로 그곳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부정할수 없다. 그러므로 형태란 곧 내용을 수반하게 되는것이며 내용에는 열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것을 질서라고 하는 지점에서 볼때 변천되어가는 영역속에서도 지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 하는것이다. 건축이나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하므로써 하나의 지점이 될만한 요소를 제시할수 있게된다.

II. 도시계획과 지장(地場)의 개념

지장(地場)이라고 하는말은 건축이나 도시계획 혹은 지역계획에 있어서 독특한 용어라고 말할수 있다. 지장(地場)은 그 뜻이 내포하고 있듯이 땅이고 바탕이자 마당이며 장소인 것이다. 장소란 개념은 공간이란 영역으로 표현 할 수도있다. 그럼으로 지장(地場)이라고 할때는 어떤 지역이 갖고있는 이미지가 존재하므로 인해서 풍토와 전통에 내포되고 있는 하나의 물적요인의 구성체라고 말할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특성 역시 물적요소의 양적인 확대에 따라서 또는 토지의 특성이라든지 풍토, 전통, 습관, 문화등에 의해 형성되어 지는것이며 주변환경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는 제각기의 의미에서 변화되어 가기도 한다. 이러한것은 외부 환경에서 내부 환경으로, 양적면에서 질적 확대로 지향해가는 가치관의 변천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것이다. 더우기 이처럼 가치관이라고 하는것은 ①일한다 ②휴식을 취한다 ③거주한다 라고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로하는 리듬을 만족시키는 생활기능과 언제까지나 정착하고 싶다고 하는 매력을 갖게 하는데 있다. 여기서 지장(地場)이란 용어를 건축이나 도시계획의 시점에서 그 이론을 도입하게된 근원은 지장산업이라고 하는 일본용어에서 출발하여 착안하게 되었다. 지장산업은 다종다원(多種多元)의 이면서도 각 지역 나름대로의 특색과 풍부한 노동력이라고 할수있는 인적자원과 원료자원, 자연자원속에서 그 지역의 생활의 근원이 되어 있으면서 사회와 밀착되어 있어서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는것을 말한다.

한편 지장산업의 특징이라면

①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했으면서도 그 기원이 오래되어서 전통적인 위치를 형성한 산지
 ②특정지역에 동일한 업종을 가진 중소기업이 집중적으로 입지해있고 지역적 기업집단으로서 산지를 형성
 ③시장영역은 국내 전국적으로 넓게 영향권을 갖고있음은 물론 해외 시장에 까지도 시장권을 갖고서 제품을 판매해 가는 산업조건을 갖추어서 정착된 산업을 말할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원동력이란, 지장산업이라고 하는 저력을 밑바탕으로 성장 했다고 볼수있다. 이처럼 지장산업이란, 중진국의 공업화과정에서 경과적으로 현저하게 양적 발전을 이룩한 산업임은 물론이지만, 한편 고도로 발전한 공업국에 있어서도 질적인면에 그 가치관을 둔다고 할때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 받을수있는 산업으로서 정착되고, 발전 할수있는 원동력을 갖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것이다. 広辞苑(岩 波書店) 사전에서는 이말의 뜻을 「특정의 역사적, 자연적 조건을 갖는토지에 어떤 종류의 공업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기업이 모여 있을때 그 산업을 지장산업이라고 한다. (또는 산지기업)이라고 정의 되어있다. 더우기 시대의 변천과 함께 지장적인 것이 신 지장적인것이 되고 산지가 신 산지와 같이 변해 오는것도 시대의 조류라고 생각할수있다. 여기서,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지장이 뜻하는 것으로서는 마을에 활력을 부여하며, 지장자원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자력과 자립의 정신을 발견하고 양성해 나감으로써 매력을 느낄수있는 장소를 가리켜서 지장적인 것이라고 정의 할수있다. 사람이 모여사는 마을이면 어느 지역이든 초기단계에서는 수공업에서 출발 하게됨을 생각할때, 거주한다고 하는것은 생산 하는것과 일치한다고 할수있다. 결국 지장(地場)이라고 함은 근본적으로는 주거와 생산이 혼합된 것이며 주거와 직장이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포착할 경우는 주거환경과

생산환경의 차원에서 취급 되는것을 말한다.

더우기 주택과 직장이 혼합되어 있다고 함은 인간생활에서 시간과 거리의 차이를 최대한으로 축소 시킨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루의 기본적인 노동시간을 위해 직장까지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자. 집에서 직장까지 왕복되는 시간이 실제 노동시간의 절반이 소요된다든가 아니면 3분지 1의 시간을 교통시간으로 메꾸어야할 경우 피곤에 지쳐서 능률적인 일을 못한다고 할때는 많은 문제가 있는것이다. 혹은 심한경우는 하루에 왕복할수 없을정도의 위치에 직장이 있다고 할때는 가정생활이란 하루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라든지 한달단위 심지어는 계절단위로 일가족이면서 양쪽 가정을 영위해야 하는 사례가 현실화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단신부임이라든가 단신가정이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생활자재에서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단락을 형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면 부조리 또한 한도를 나타내 보인다. 즉 주거와 직장이 일치한다고 하는것은, 인간에게 있어 기본개념이기도한 「의·식·주」라고하는 생활환경의 패턴을 이용한 테두리속에 직장이라고 하는 생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서 정착지로서의 기본적인 바탕을 형성해 나간다고 할때 지장적인 개념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의·식·주」의 요구도란, 지역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날수도 있으나 「식·주·의」가 되든 「주·의·식」이 되든 어떠한 일정한 공간내에서의 생활의 장을 구성하는 기본개념에는 변함이 없는것이다. 한편「지장」이라고 할때는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 시킴과 동시에 문화와 전통기술을 관련시켜서 새로운것을 추구하고, 그 지역의 장점을 향상 시킴으로 해서 인구의 정착화를 꾀하는데에 그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한지역의 위치와 규모속에 생활의 기반을 조화시켜 나가면서 권역(영역, 혹은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데서

지장이란 개념을 갖고 존재할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이라고 할때는 다음

3가지로 구분할수 있으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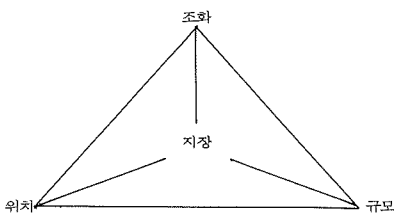
첫째, 행정적으로 구분되어있는 구획.

둘째, 공간적인 구분

셋째, 전통적인 의식구조의 분할

이상과 같이 지역이라고 함은 인구의 집단이 공간 구성을 가지고 전통사회를 형성해 가는 장소라고 할수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에 있어서는 공간개념속에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그리고 생산환경을 하나로 복합시켜서 조화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정착시킬수 있는것이 지장의 핵이 되어야만 한다.



(그림 1) 지장과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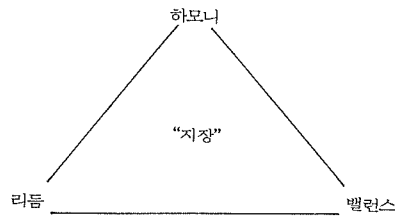
오늘날 도시의 발전은 도시의 각 구분에 따라 여러가지의 요인과 잠재력에 의해서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지방의 시대라고 불리워 지고있는 오늘날,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기능이 근대기술로 바뀌어가고, 지역의 이미지가 일신되므로 매력에 넘치는 새로운 지역으로 그 위치를 정립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볼때 기초적인 이론을 구축해서 그 이론을 단위로 해서 방법론을 고찰하는것이 중요하다.

III. 건축·도시계획과 지장이론

도시나 마을을 이해하고, 주어진 환경에 대해 고찰을 시도한다고 할때, 계획 입안자의 입장이란 실태분석에서 제안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시도하게 된다. 한가지 방법론으로써는 주어진 대상에 대해 조화를 발견하려고 하는데에서 계획이론을 설정하려고 했다. 예를들면 공간을 형성 하고있는 것에는 “리듬”과 “밸런스”와 “하모니”의 3가지 질서로서 형성되어져 있다고 간단하게

요소를 구축하고 제각기의 요소속에서 질서에 대한 개념으로 관찰을 전개시켜 나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림 2) 지장을 형성하는 기본질서

여기서 “리듬”이라고 할때, 일정한 규율에 따라서 환경조성을 행하려고 할때 가장 우선되는 체크 사항이 된다고 볼수있다. 인간이 거주 환경을 조성하려고 할때는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순응하고 제어해야 하는점이다. 여기서 첫번째 질서인 “리듬”의 열쇠가 되는것은 “자연” 그 자체의 질서를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거주활동을 비롯한 생활체제의 방안으로서 바람직스러운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리듬”이 추구하는 구심점이란 최종적으로는 진·선·미 라고하는 예술의 영역인 3가지 개념에서 찾는다고 하면, 선(善)을 들어서 말할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윤리의 사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자연 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등의 학문에 있어서 이 “리듬”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이란 평범한 환경을 예를 들어도 알수있듯이 기후의 변화라든가 계절적인 현상 역시 일정한 율동속에서 움직이고 있는것이다. 두번째 질서인 “밸런스”란 한국어로 해석하면 균형 -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중요한 질서이다.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밸런스”의 추구란 인간이 거주 한다고 하는 원점에서 볼때, 자연과 개발이라고 하는 조화를 묘사하는데 미(美)란 영역에서 추구된다고 본다. 「음」과 「양」은 서로 대립하는 상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나 마치 여기서 말하는 “밸런스”란 음양의 관계 혹은 남녀라고 하는 관계에서 어딘가 통하는 점이

있다고 하는것과 같다고 할수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추구하는 자세속에 이 “밸런스”라고 하는 질서가 발생 되는것이라고 할수있다.

세번째 질서로는 “하모니”이다.

이 용어는 조화라 표현되지만 그외에도 융합이라든지, 일치 혹은 화합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하모니”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마치 물적 환경을 매개체로 했을때

최종적으로 자연환경과 인간의 거주환경 사이에 조화있는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곧 “하모니”란 질서를 단적으로

표현했었을때 계획가가 무형에서

유형의 과정속에 질서있는 꾸밈을

발견하고 인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될수있는 단계를 들수있다.

이 “인공”에 대해 고찰해보면 「인간은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의 주변을 자신의

형태에 알맞게 바꾸어 왔으며 그

인공화된 세계속에서도 사람들은

또다시 개조해 나가면서 그속에서 어떤

법칙성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같이 꾸밈을 추구하는 세계속에서

새로운 법칙에 대한 발견을 생각

할수있다. 인공에 대한 학문은 이른바

“기술학”전반에서 볼수있다.

자연과학을 기초로 하는 농학과

공학에서 비롯하여 지리학, 사회학,

심리학이나 더 나아가서 경제학 또는

행정학등에서도 볼수있다. 더우기

물적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학과

토목공학등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것은 인공화가 자연속으로

조화하며, 지향하려고 하는 이념속에서

본다면 예술적 측면에서 “진”이란

영역을 들수 있겠다.

여기서 리듬, 밸런스, 하모니의 3개의

요소를 포함해서 요소적인 측면에서 그

질서를 찾을수 있다.

한편 진·선·미의 관계를 예술적인

측면이라고 할때, 요소는 예술의

차원을 지향해 가면서 하나의 질서를

찾는다고 할때 거기에서 “지장”을

형성하는 질서가 발견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주어진 여건여하에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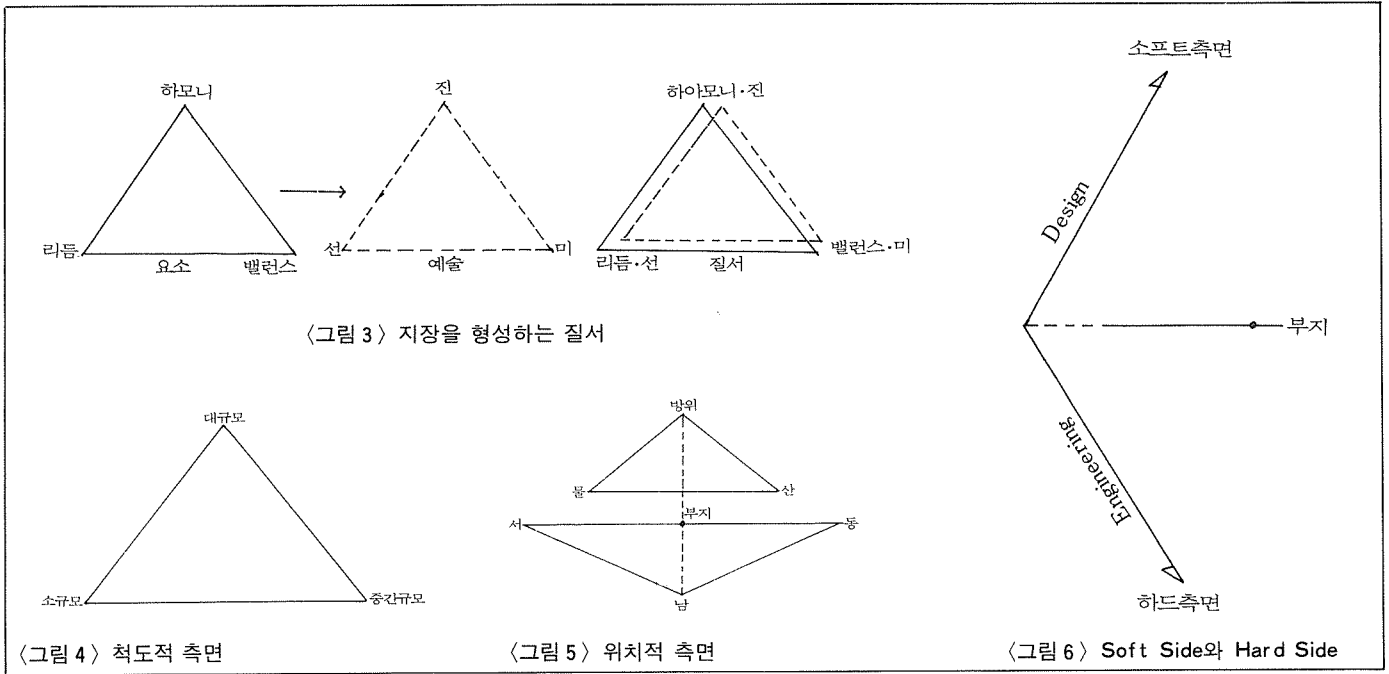
기본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예술적

시아에서 하나의 질서있는 계획과정을

정리하는데 편리한 수단으로써 생각을

정리해가는 방법이라 하겠다.

한편 규모적인 측면을 들수있는데



이것은 적은 규모의 경우 또는 대상 면적에 대응할때 중간적 규모라든지 대규모라는 대응 관계에서 척도(Scale) 적인 측면을 생각할수 있다. 위치적인 점에서 볼때는 자연적이고 지형적이며 풍토적인 측면을 들수 있는데 이것은 위치적 측면이라고 할수있다. 위치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자연 그 자체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형지물이라든가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습관에 근거를 둔다면, 공간적으로 장소 결정요인이 되어온 풍수지리설을 들수 있는 것이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그의 저서 다산논총(茶山論叢)에서 풍수지리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고있다. 「풍수에 관한 서적을 보니 아름다운 묘지(墓地)와 길(吉)한 땅을 그림으로 그렸고, 그 방위를 분별하여 자(子), 오(午), 묘(卯), 유(酉)라 하였고 건(乾), 곤(坤), 간(艮), 손(巽)이라 하였다. 소위 입수(入首)하고 기복(起伏)한 형세와 용(龍), 호(虎)와 사(砂), 각(角)의 형상및 소위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것이 모두 방위가 상충(相衝)했거나 상합(相合)한것으로서, 재화(災禍)와 길상(吉祥)을 분별하지 않은것이 없었다라고 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알수있는것은,

풍수지리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서란 방위와 산과 강의 관계를 들수있다. 이것은 곧 위치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의 건축물을 예를 든다고 해도 알수있듯이 동서남북의 방향을 잘못 정해서 위치를 결정하게 될때는 건물의 외적면은 물론 내적인면에서 볼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게 되는것과 같다. 간단한 문제로 방향을 무시했을 경우 동선상의 불편은 말할것도 없고 거주하는 입장에서의 열효율면에서 손실이라든가 일조권에서 오는 직접, 간접적인 영향은 무시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와 시대성속에 계승되어지고 있는 사항을 인식하는것은 계획원리에 있어서 위치적인 측면으로써 기본적인 사항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항들은 소프트 측면(Design)에서 추구할수 있다. 반면 척도적측면(Scale) 측면은 시간과 거리 관계에서 대소관계를 비교 할수 있듯이 하나의 규모적인 특성을 이야기 할수있다. 인간을 기본으로 공간의 위치를 측정할때 기본단위 이기도 한것이다. 이것은 또 생활공간에 있어서 기술적인 면에서 환경을 평가하는 수단이기도 한것이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크기에 기준을 세우고 척도적인 조화를 나타내는 측면에서 것이라고 볼수있다. 이러한 방향을

하드 측면(Engineering)에서 생각할수 있는 축이 될것이다. 이와같이 양면을 생각할때 이 양면을 Soft Side와 Hard Side로 분리할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하나의 부지(Side)의 위치를 지장(Situation)이란 면적인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볼때 기준이 되는 축을 분기점으로 해서 디자인 방향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soft side라 하겠다. 그리고 Engineering방향을 기호적으로 처리하는 입장에서 Hard Side로 표현 할수있다. 이처럼 하드 측면과 소프트 측면의 양면 관계의 대응에서 도시를 계획하려고 할때 그 골격 구성을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하는점에 있어서 시점을 생각해 낼수 있는 것이다. 지장이론의 설정에서 3가지 기본질서인 리듬, 밸런스, 하모니를 생각할때 계획의 단위와 질서의 방침을 설정했다. 이 설정된 지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매개로 했을때 계획단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지레벨 둘째, 가구레벨 셋째, 주구레벨 로서 단위를 설정할수 있다. 이와같이 3단계 레벨에서 설정된 계획의 지표를 가지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 방법론을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설정된 레벨을 가지고

리듬, 밸런스, 하모니속에 인접되는 삼각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면 시가지에서는 다음과 같다.

시가지의 계획할때는 우선 단계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계획단위를 설정해야 한다. 이때의 기준이란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기초자료에서부터 출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태조사와 분석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단계로 계획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 된다.

여기에서 계획단위를 대략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 ① 1 단계에서는 부지(Site)로 면적 100㎡전후의 독립된 규모이다. 개별적인 부지(site) 소유자의 의향에 따라 좌우된다.
- ② 2 단계는 블록(Block)으로써 면적이 1 ha 내외의 규모이다. 정비축선이 요구되기도 하고 소규모 재개발이 가능한 단위이다. 인접환경이 수반된다.
- ③ 3 단계는 주거(dwelling units)로써 면적 10ha내외의 규모이다, 주거의 집합화로 각 유형별로 정비 방침이 가능하고 계획 단위의 설정으로는 가장 알맞은 규모라고 하겠다. 거주 환경의 범위이다.
- ④ 4 단계는 a단위로써 각 규모에 대응하는 면적이 된다. 지구(地區) 단위라든지 규모 확대에 따라서 가정이 설정된다. 도시환경의 영역이라 할수있다.

이상과 같이해서 시가지의 계획단위가 설정되고 정비수법이 검토된다. prof. sato는 학위논문에서 「시가지 전체속에 인간이라든지 건축물의 밀도가 어떻게 배치 되어야만 하는것을 논하는 배치론, 그 배치를 실현해 가면서 하나하나의 부지라든지 가구(街区)가 바람직한 거주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느정도 밀도를 제어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규제론, 그리고 규제론과 배치론을 연결해서 현 상태에서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어떻게 유도할까를 논한 유도론의 3가지 계획논리 인것이다. 이것에 대해 선도해가는 실태 분석론으로써 규제론에 대해서는 익치론(閾値論), 유도론에 대해서는 변동론을, 배치론에 대해서는 분포론을 제각기 대응시켜서 이것을

실태분석론의 3가지 주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prof. sato의 이론과 본 지장 이론의 계획단위를 위치시켜 볼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질서관계가 설립된다.

시가지의 계획단위를 설정하고, 질서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관리적인 제어가 필요하며 또한 일정한 기준하에서 행하여져야 하는것이다. 그 제어란 일반적으로 건축기준법 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루지기도 하며 행정지도 요령이나 특별조치법에 의해 행하여질 경우도 있다.

건축·도시계획의 지장개념에서 생각할때 시가지의 계획단위와 질서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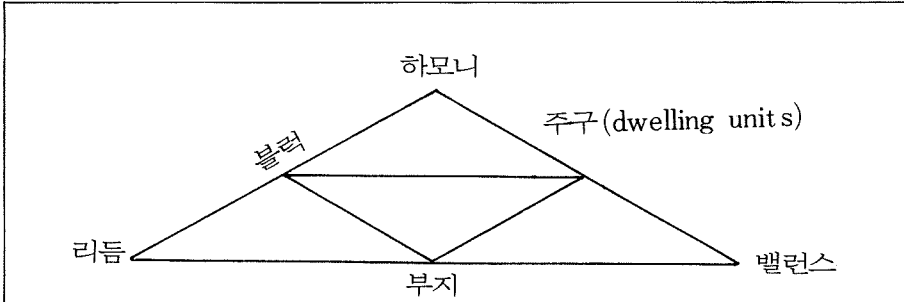
- ①하나하나의 부지단위와 가구단위의 사이에서는 리듬을 축으로해서 생각할때 규제 개념을 가지고서 판단의 척도로 삼을수 있다.
- ②가구단위에서 주거 단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밀도적으로나 인공적으로 하모니를 이루도록 배려할때, 점도조건이 불비한 부지의 해결이라든지, 일조조건, 미니개발에서 중고층 건물의 위치 또는 일정규모의

공장부지의 계획, 주택과 공장상업의 혼합비율 관계등으로, 거주 환경의 차원에서 배치개념을 가지고서 고려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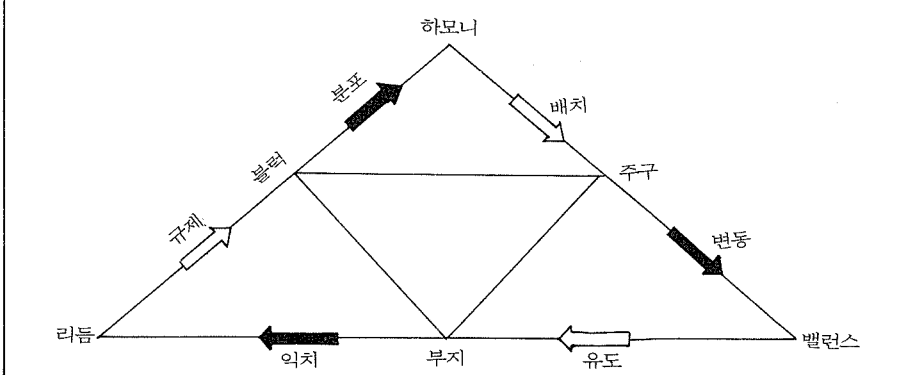
③주구단위에서 부지 단위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밸런스를 중심으로한 계획여부를 비교하고,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유도개념을 두고서 파악할수 있다.

또한 실태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관계를 생각할수 있다.

- ①공간과 시간의 변천과정속에서 변동에는 유도 개념으로 대응 시켰다.
 - ②익치(閾値)의 경우는 규제 개념으로 두었다.
 - ③분포에서는 배치개념을 도입시킴으로써 그 해결을 생각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계획입안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서 역사와 시대성속에 계승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분석 할수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도시계획은 종합예술이라 부를수 있겠고, 계획속에는 이념과 철학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 지금까지 전개해온 지장 이론의 개념에 대한것을 종합적으로 전개시키면 육면체로서 형성될수 있다.



〈그림 7〉 시가지의 계획단위의 설정



〈그림 8〉 시가지의 계획단위와 질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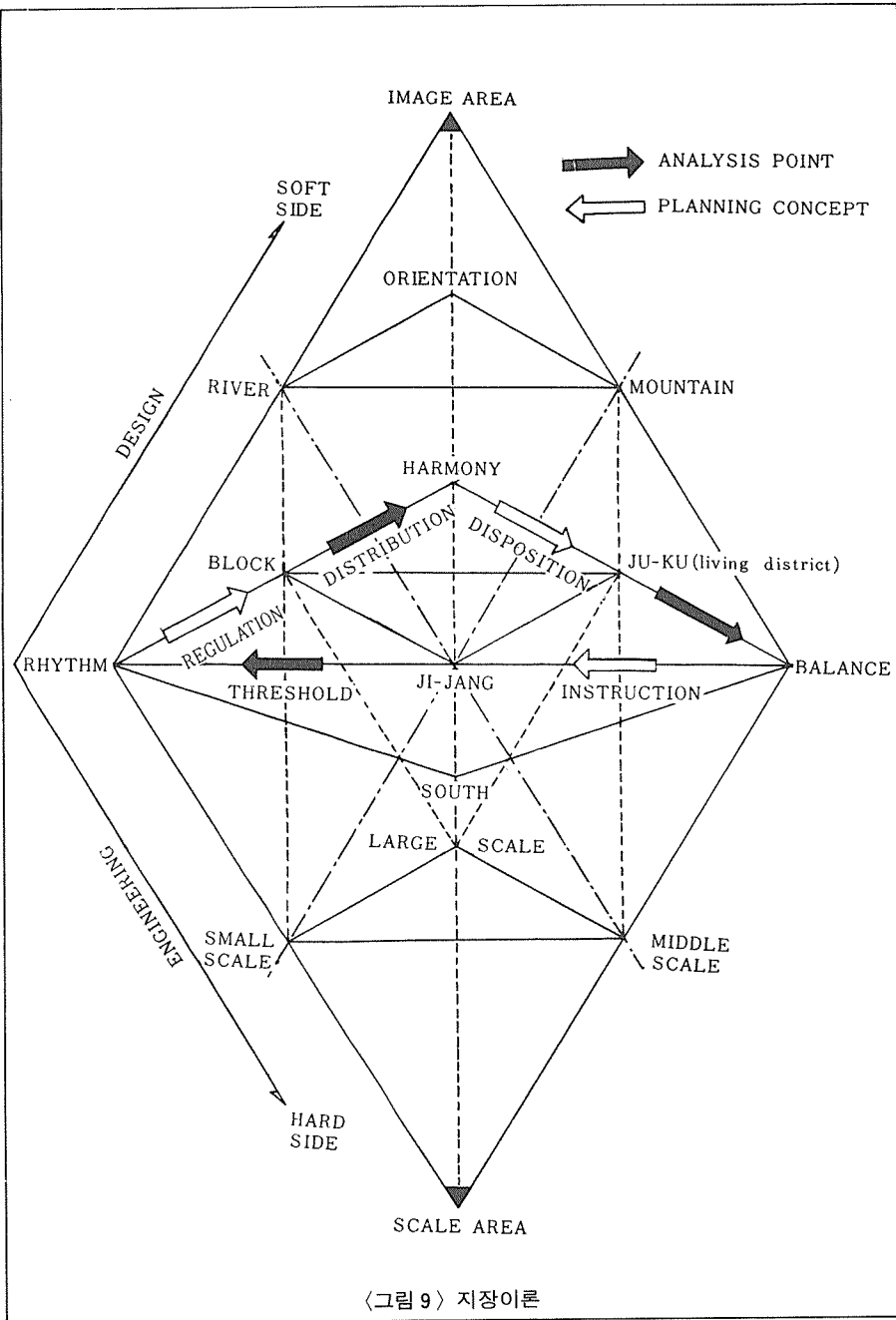
체계화 시킬수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계획 단위로서 그 위치가 정립될수있는 기초적인 연구라고 할수있다. 지장이란 시대의 조류에 의해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게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계획을 전개 할때에 있어서 시점을 정하고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전을 갖고 고찰을 시도해야 하는 점이다.

하나의 공간 단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거기에 대응되는 해결방안을 검토해 나감에 있어서도 실패적인 면에서의 평가방법과 범제도적인 면에 있어서의 평가방법 등을 들 수 있겠다. 이 양면을 연결시켜서 해결안을 모색하려는 수법으로써 기술적인 방법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 1) 대상 지역의 풍토와 입지조건, 규모와 배경을 고려함으로써 요인 분석에서 형태를 파악해 나가야 하는 기초적인 시점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 2)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에 해당되는 Soft Side와 Hard Side에 있어서 기초적인 수법에 있어서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균형을 발견해 내는 점이다.
- 3) 부지단위, 가구단위와 더불어 주구단위를 중심으로한 정비수법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Koichi Tonuma, 'Humanscale', Shokog Press, June 10, 1978.
2. Takamasa Yoshizaka, 'Material Study', OUBUN Press, August 5, 1980.
3. Hiroshi Mimura, 'The living policy of the city', Kagkei Press, October 25, 1980.
4. Kevin Lynch, 'Atheory of good city frm', M. I. T. Press 1981.
5. Shigeru Sato, 'The fundamental study of the planningop living enviroment from the perspective of density', Waseda University, doctoral thesis, 1982.
6. Kim, Young Ha, 'A Study in the generation of ruined factory sites and their transformation process in Kawaguchi city, the local industrial area', Waseda University doctoral thesis, December 1982.



〈그림 9〉 지장이론

계획설정에서 지장(Situation)을 핵으로 해서 리듬, 밸런스, 하모니에서 형성되는것을 기본질서로 했을때, 내부에 형성되는 부지단위, 가구단위, 주구단위의 요소적인 측면을 이루는 삼각형의 각 정점을 중심 삼각형으로 질서화 한다. 이때 소프트 측면을 지향하는 방향에 위치적 측면을 생각할수 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방향으로 척도적 측면을 위치 시킬수 있다. 이와같이 배열했을때의 삼각형의 각 정점을 연결 하는 선을 연장시키면, 육면체가 형성됨을 알수있다. 이렇게 형성된 육면체의 점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이미지의 축으로써 생각을 전개시켜가면,

일점사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대응관계를 유지시키는 축으로써 설정할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전개 해감으로써 하나의 방법론을 체계화 시킬 수 있음을 알수있다.

IV. 결 론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지장이란 개념 설정에서 본 연구를 전개 시켰다. 지장을 기본으로 하는 계획단위으로써는 부지레벨의 주변환경과 가구레벨의 인접환경과 함께 새로이 주구레벨을 설정했다. 이 주구레벨의 연결 과정에서 거주 환경의 범위를